

과거를 잊은 개인과 교회와 국가는 패망한다

성경말씀: 엡2:11-13

요즘 에베소서 강해, 교회의 신비,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들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엡1:3),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 심지어 천사들도 판단하는 권세
너무나도 귀중한 은혜와 특권

요즘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 분석, 성경의 가려진 진리를 많이 본다.

개역성경 참으로 귀중한 역할을 했지만 수많은 오류, 번역 문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참 뜻을
알기 심히 어렵다.

지난 3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 번역, 사람의 뜻이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의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함. 중고등학생들도 읽고 뜻을 알 수 있게 쉽게 정확하게 번역함
기존의 교회들, 대다수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 강해 부족, 감성팔이 설교, 변영 신학 설교

프로그램, 교회 충성, 신비주의, 기복 신앙으로 일관함

이러는 가운데 15년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강해

중요한 책들은 절마다 다 강해함,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더욱이 우리는 신약 시대 '예수님의 내 교회' 강조, 영혼의 자유

스스로 배우고 판단하고 서서 제 기능을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격려함, 일하러 오지 않는 교회
필수 설교 40선, 1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배당도 짓고 인원/헌금도 늘고 미디어 사역을 통해 대한민국과 해외동포들에게
말씀 전달, 동일한 믿음의 가치 전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이러는 가운데 종북 주사파 세력의 준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정권, 자유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
코로나 19, 교회 탄압, 견디다 못해 결국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옳은 쪽 가치를 성경대로 외치기
시작함, 우리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알림

역사 왜곡, 바로 잡기 위해 여러 강사들 초청, 진실을 보여 주는 강연으로 사람들을 일깨움

애국 운동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킹제임스 성경과 신약 교회, 영혼의 자유, 목사나
교회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 깨닫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 선포, 교육 등을 하면서 분주하게 지난 몇 년을 보냈다.

요즘 목사의 책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민한다.

과연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과거를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고전10:12).

왜 성경을 읽는가? 롬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사실 성도들 대부분이 열심이 있다 보니 문제가 생김, 아마도 인원 헌금도 많고 선교도 많이 하였을
것이다. 사실 아무 것도 안 하는 교회는 문제가 별로 없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 보냄,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또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전10:1).

과거 모세 시절,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없다(신4:7).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8-9절

그런데 우상을 숭배함. 참으로 놀랄 만한 아이러니

하나님을 직접 보고 알면서도 우상 숭배,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우리는 어떤가?

고전10:5,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거꾸러졌느니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됨

오늘 < >, 개개인의 과거, 교회, 민족과 국가의 과거를 다시 살펴보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르게 설계하고 계획해야겠다.

1. 과거의 우리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2장 전체를 할애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1. 영적으로 죽은 상태,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은 시체

2:2 마귀를 섬기던 자들, 불순종의 자녀들, 요8:44,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자녀들

2:3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던 자들,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

2:11-12, 더욱이 이방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한 외인들, 그들에게 천대받던 자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가 이러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2:8-9)

13: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현실: 목사로서 우려가 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 세대주의 진리, 종말론 및 요한계시록의 이해, 많은 진리의 지식

교회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것 없다. 자유롭게 믿음 생활

이러는 가운데 영이 병드는 분들이 많다.

대다수 사람들, 자유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방종으로 치닫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에 안 온다. 코로나 이후 실시간 예배, 떨어져 못 오는 경우를 빼고는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마귀의 계으름의 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 총선 정국, 수많은 동영상들, 건국 전쟁 영화 이승만 열풍

다 좋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매몰돼서 살면 안 된다. 하루 종일 유튜브 틀어놓고 살면 안 된다.

이것은 과거 교회 다닐 때 모든 것 팽개치고 교회에 가서 살던 것과 동일한 것 시간을 내서 광화문 광장 애국 집회도 가고 좋은 애국 영화도 보고, 바르게 투표하고 다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롬12:1-2,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탐구해야 한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매일 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 묵상, 그리고 경건 서적을 읽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살전5:16-18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늙고 병들고 아프다가 죽는다.

이런 어려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정신 훈련을 해야 한다.

그것은 책을 성경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폴 트립의 책을 소개한다. (*), 1950년생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분주한 목회자, 연설가, 3년 일정이 잡혀 있던 사람,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려(신장 붕괴) 수술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신체가 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던 일이 그에게 생김,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닥침

아무도 미래를 장단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각자들의 체험, 글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고난(*)

다시 강조함: 예수님을 믿기 전의 나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영혼의 자유, 수많은 진리의 지식, 사랑침례교회 일원인 것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이 닥치는 시점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며 미리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2. 과거의 우리나라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 지난 76년 동안 이 땅에는 좌우 대립이 있었다. 국가를 전복시켜 공산주의 체제를 세우려는 악한 자들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 선한 자들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나라가 공산화될 뻔 한 일들이 매우 많이 있었다.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는 말이 있다.

이호 목사,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강의(7개)를 다 들음, 교회와 공산주의, 교회 내 좌경화까지 총 11개를 들음, 나도 너무나 무지했음을 알게 됨

결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 주신 국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과거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기억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나라 조선을 그리워한다.

역사극을 보면 완전한 판타지가 그려져 있다.

조선은 그렇게 화려하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다.

국민의 90%가 상놈 노비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나이가 47세, 그러면 일반 백성들 35세 안팎, 서울대 의대 황상의 교수 추정(*)

지금 평균 수명 80세 이상, 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가 좋아서, 열심히 일하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체제

조선 1894년 여름, 조선(*)

오스트리아 여행가인 폰 헤세-바르텍이 1894년 여름에 조선을 다녀가 1895년 독일에서 출간한 여행기로, 서양인의 눈으로 본 개항기 조선의 사회, 문화 보고서다. 저자는 일본 나가사키를 출발해 부산에 상륙한 다음, 배편으로 서해를 거쳐 제물포, 서울을 직접 발로 누볐다. 호기심 많은 여행가는 조선의 구석구석을 직접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기록물로 남겼다.

책 읽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조상신의 이름으로 5000년 동안 마귀를 섬겼기 때문이다.

조선처럼 샤머니즘, 무당이 활개 치던 국가가 또 있을까? 지금도 샤머니즘 오컬트 유행

영화 파묘, 무당굿으로 조상 원한을 풀어 주는 완전 샤머니즘 오컬트 영화(*), 여기에 친일 반일 등의 이데올로기를 넣어서 궁극적으로 반일하게 만드는 영화, 관객수 700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화, 서울의 봄 같은 거짓 영화 보러 가면 안 된다. 안 가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의 증언: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

결국 고종이 1910년 나라를 일본에 바치고 자기와 가족들만 호화롭게 사면서 만 35년 동안 일제 식민 지배를 받는 처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승만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계몽

우리 힘으로 해방 쟁취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미국에서 이승만과 애국자들 미국 기독교인들,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는 카이로 선언이 1943년에 나오게 되고 결국 1945년 8월 15일 해방

박헌영 일당의 남로당 조직이 100만 명, 이것을 막기 위해 이승만, 한경직 등 반공주의자들의 노력, 수많은 사람들 희생되며 1948년 8월 15일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 건국 건국의 근본, 성경과 성경적 가치

한반도에 5,00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와 인권, 신분제 폐지, 남녀평등이 구현되는 국가 건설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 얼마나 처참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약 한 달 만에 낙동강으로 밀림(*). 피난민 (*) 백선엽 장군 등 애국 군인들의 헌신, 미국의 도움

치고 올라다가다가 중공군 개입, 최악의 전쟁 장진호 전투 1950.11.27.-12.11, (*) 함경남도 장징호 부근, 영하 30도, 심지어 영하 45도까지 내려감, 수많은 미국 군인들 죽음
홍남 철수 작전(*)

홍남철수 작전은 중공군이 6.25 전쟁에 개입하여 전세가 불리해지자, 1950년 12월 15일에서 12월 24일까지 열흘간 동부전선의 미군과 국군을 홍남항에서 피난민과 함께 구출시킬 목적으로 실행된 대규모 철수작전을 말한다. 이 작전을 통해 10만명의 연합군과 9만명의 민간인이 무사히 적진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미군이 모든 무기 다 버리고 인민들 태워서 약 9-10만 명 구조

6.25 사변 약 500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누가 문제인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중공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가난, 전쟁, 고통을 전혀 모르고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동정심을 보내고 있다. 같은 민족이라고.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대적점

같은 핏줄을 가졌어도 공산주의자들과는 절대 같이 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이런 과거를 잊으면 반드시 위협에 처하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과거를 잊기 때문이다. 마귀의 공산주의가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 주는 해결책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정권을 잡으면 나라와 그 안의 국민은 결국 자유를 잃고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

결론

성경이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 주는 충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라. 어떻게 국가가 섰는지 기억하라.

이승만의 유언, 이것은 나라의 앞날을 염려한 건국 대통령의 유언이다.

(*)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갈5:1).

그런데 이것은 본래 속박의 멍에에 갇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속박의 멍에: 죄, 사망, 마귀, 지옥, 조선 봉건 체제, 일제 35년, 무당들의 국가, 샤머니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것들이 속박의 멍에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이 모든 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우리의 과거를 늘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건국의 은혜, 변영의 은혜 등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